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한국무용교육 방향 탐색

김승일, 유지숙

To cite this article : 김승일, 유지숙 (2020)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한국무용교육 방향 탐색, 한국무용학회지, 19:4, 109-119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한국무용교육 방향 탐색*

김승일 중앙대학교, 교수 · 유지숙** 중앙대학교, 강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korea traditional dance education according to the decrease in the population of the academic age

Kim, seung-il·Yoo, ji-sook *Chun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한국무용 교육 방향을 탐색하였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A예술 고등학교에서 10년 이상 한국무용 전임교사로 재직 중인 교사1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여 단일 사례로 선정하고 심층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속되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학령인구의 감소현상에 따라 한국무용의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실용무용의 상승세 또한 한국무용의 입지를 약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발레교육전문브랜드의 활약으로 사교육의 하나로 완전히 자리 잡은 발레는 그 인구가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유아한국무용의 기반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연구 참여자는 유아한국무용 브랜드 구축을 제시하였는데 유아기의 한국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다면 한국무용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한국무용 교육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연구 참여자는 앞으로의 한국무용 교육이 무용의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문화와의 다양한 접목과 융합을 통해 발전시켜야 함을 시사했다.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꾸준히 이어 나간다면, 하나의 전공에서 얻을 수 없던 확장된 의미와 교육의 다양성과 중요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장기화된다면 무용직업의 창출 부분에서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주요어 : 저출산현상, 학령인구감소, 유아한국무용, 융·복합, 무용교육브랜드

Abstract

In this research, we examine the direction of Korean traditional dance education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where by academic age population is decreasing constantly due to low birthrate problems. As such,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to one Korean traditional dance teacher who has been working as a teacher for more than 10 years in A Art High Schoo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tinuous low birthrate is causing the decrease in academic age population as well as Korean traditional dance population, hampering and weakening the improvement of practical dance and the position of Korean traditional dance. Also, considering the fact that ballet has established its position as a field of private education, prompted by the promotion by professional brands specialized in ballet education,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Korean traditional dance for preschoolers. The authors suggest establishment of a brand specialized in Korean traditional dance for early childhood. If preschoolers are able to experience Korean traditional dance since their childhood, it would be conduciv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dance

* 본 논문은 2017년도 중앙대학교 연구 장학기금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entityjs77@naver.com

[Provider:article] Download by IP 219.255.207.43 at Monday, April 13, 2020 5:01 PM

by bringing positive changes to the Korean traditional dance education. Second, the authors indicate that Korean traditional dance education should be integrated with other fields of Korean culture instead of restricting itself to dance. Collaborations with other fields would demonstrate extended significance and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diversity. These efforts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jobs related to Korean traditional dance.

Keywords : Low birthrate; Decrease in academic age population; Korean traditional dance for early childhood; Integration-convergence; Brand specialized in Korean traditional dance

서론

‘출산율0.98명… 세계 저출산 기록 다시 쓰는 한국.’
(한국일보, 2019.02.28).

통계청이 2019년 2월 27일 발표한 2018년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이것은 도시국가나 과거 동독 붕괴와 같은 극단적인 국가 위기상황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김선녀, 2019).

저출산 현상은 향후 지속적으로 학령인구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공교육 차원에서의 학교 및 학급의 운영이나 교실 수업의 변화뿐만 아니라 각 급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환경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김병만, 2018).

2017년 846만 명이던 학령인구는 2030년 607만 명, 2045년에는 529만 명으로 줄어든다. 2067년에는 365만 명까지 쪼그라든다. 학령인구의 감소가 미래 경제성장에 제약을 가져올 핵심 요소일 것이다(이코노미, 2019.12.18).

또한 급격한 학생 수의 감소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학군조정, 통학거리에 따른 교육 불균형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대학은 이미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부 차원의 학교 평가를 통하여 정원수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한 지 오래다(박대권, 2018).

이렇듯 앞으로 전반적인 교육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지만 이를 대비하는 교육계의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무용은 20세기 초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에 편입되었지만 이후로도 예술이자 학문으로써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증명을 해야 하는 신생의 학문이자 변방의 학제였다(Michael Clayton, Mark Franko, Nadine George-Graves, André Lepecki, Susan Manning, Janice Ross, Rebecca Schneider, Noémi Solomon, Stefani Miller, 2013; 정옥희, 2018 재인용). 국내의 경우 해방 이후 개인무용연구소에서 대학 무용과로 이행되면서 무용과가 무용계의 주도권을 획득했지만(윤지현, 2017; 정옥희, 2018 재인용), 2005년에 시작된 정부주도의 대학재정 지원 사업 및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해 통폐합되거나 축소되기 시작하여 소위 무용과의 위기 프레임이 형성되었다(정옥희, 2018).

특히 그 중 한국무용의 학령인구감소위기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용은 점점 일반 대중들로부터 관심을 잃어가고, 한때 번성기를 이루었던 짧았던 영화는 무용인구의 감소와 무용학과의 통폐합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우리를 내몰고 있다(정시현, 2012).

수도권소재 A예술 고등학교와 B예술 고등학교 주최의 최근 3년 무용콩쿠르를 살펴보면 한국무용과 발레의 중학생 참가인원이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발레가 아동 혹은 초등학생들이 타 장르의 무용에 비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가장 대표적인 무용교육이라는 인식으로부터 나온 결과일 것이다.

이렇듯 무용장르의 특수성과 한국무용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한국무용전공자의 수는 급격히 감소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각 예술 고등학교와 대학교 한국무용 전공자의 정원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령인구의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일 수 있다. 저출산의 추세를 인정하고 오히려 앞으로의 교육의 질을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무용교육 또한 학령인구감소를 비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정비를 통한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출산 현상에 관한 무용 분야의 선행논문으로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고령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노년층의 무용 활동에 관한 연구(이성희, 2013; 이은형, 2018)나 임신부 혹은 여성 직업 무용수의 출산에 관한 연구(홍애령, 2018; 박성희, 2017) 등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노년층, 혹은 무용수에 관한 연구로 아직까지 한국무용분야에서의 학령인구감소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학령인구감소현상으로 인해 급변하게 될 교육환경에서 한국무용 교육의 발전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나이가 지금 현재 한국무용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진단해보는 것은 한국무용 교육에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한국무용 교육 방향 탐색이라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한국무용교육의 현실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둘째, 한국무용교육의 방향성에는 어떠한 요인이 있는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사례연구의 방법을 적용하여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한국무용교육의 발전방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하나의 실제 본보기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사례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연구 참여자를 단일 사례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예술 고등학교에서 한국무용을 20년 이상 가르친 교육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비 확률표집방법 중 유목적 표집법을 사용하여 선정했다. 연구 참여자는 A 예술 고등학교의 한국무용 전임선생님으로 A예고

에서 한국무용 전임교사로서 14년 동안 재직 중이다. 교육자로서 다양한 수상경력과 활발한 안무활동을 겸하여 한국무용 교육에 힘쓰고 있다. 본인만의 확고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한국무용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안무활동을 하면서 무용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어 본 연구 의도를 잘 이해하고 협조하였으며 긍정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 문헌조사 방법 등의 다양한 기법을 통해 자료 수집을 이루어졌다. 문헌은 국회도서관, 학술정보원과 각 포털사이트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키워드를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심층면담으로 연구문제의 결과가 보다 현실적으로 도출되도록 하였다. 문헌자료를 토대로 심층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에 충실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층면담은 비구조적 면담을 사용하여 내용과 방식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면담자와 피면담자의 관계와 면담의 상황적 유동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열린 형태로 진행하였다. 면담 질문지의 질문들은 개방형 질문으로 만들며, 연구자의 용어가 아닌 현장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였다. 공식적인 면담을 1회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수회에 걸쳐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면담을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또한 반 구조화된 면담은 2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한국무용교육의 현실, 한국무용교육의 방향성에 대하여 면담자가 질문내용이나 질문방식을 상황에 맞게 변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녹음하였다. 심층면담으로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컴퓨터로 옮겨 쓰는 전사 작업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내용을 전사하면서 면담자의 의도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전후관계 문맥이 맞지 않는 내용은 재구성 하였으며, 사적인 내용은 제외시켰다. 이렇게 전사된 내용은 연구자의 각각 별개의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3. 자료 분석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은 원자료를 어떻게 이해, 해석하는가를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므로 자료를 어떻게 분류, 검토, 검증하며 보고할 것인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문헌자료와 면담자료를 컴퓨터에 전사(transcription)하여 심층면담 및 문헌자료를 Spradley(1980)가 제안한 영역 분석과 분류 분석을 작성하여 부호화 작업을 한 후 연구문제에 적합한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연구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하위 주제들과 핵심주제들을 도출하고 사례의 전체적인 윤곽을 정밀히 파악하여 기술할 내용을 선정하였으며, 자료 분석으로 4개 세부영역, 3개 핵심주제, 2개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표 1>

표 1. 면담내용 범주화 과정 및 분석내용

상위범주	2차 범주화	1차 범주화
한국무용 교육현장의 변화	한국무용전공생의 감소에 따른 위기감 유아한국무용브랜드의 부재	학령인구감소, 학교의 압박(실용무용) 유아한국무용의 부재, 발레의 대중화 배경요인
통합예술교육	한국문화 안에서의 정체성 확립	한국무용의 한계점 한국무용교육의 다양성 확립

4. 자료의 진실성 및 타당성

본 연구는 자료 수집 후 분석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므로 어떤 연구가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고 다른 연구들에게 의미 있는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가 신뢰, 타당해야 한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에게 면담내용이 연구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는 것을 알려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료 분석 후 연구 참여자에게 면담내용을 정리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석된 자료는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도 분석법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하였으며, 연구의 모든 과정에 대한 상세한 진술,

연구현장에서의 장기적 관찰 혹은 같은 현상에 대한 반복적 관찰, 동료연구자들과의 협의하고 연구자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려고 하였다.

결과 및 논의

1. 한국무용 교육현장의 변화

최미희(2008)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무용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아무용의 교육환경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유아에게 적합한 무용 활동 및 교재개발과 학부모의 인식변화, 한국 무용 강사의 체계적 양성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유아한국무용 교육의 기반 구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용 교육현장의 변화에 대해 한국무용전공생의 감소에 따른 위기감과 유아한국무용브랜드의 부재로 범주화 하였다.

1) 한국무용전공생의 감소에 따른 위기감

연구 참여자는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무용전공생의 감소도 느끼지만 그 중 특히 한국무용전공생의 감소에 대해 그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무용 전담교사로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제가 지금 제직할지 14년 되었는데요. 처음 왔을 때 보다는 전국에 한국무용을 전공하는 고등학생이 대충 14년 전에 보았을 때는 300명 정도였는데요. 지금 250명이 되었다가 지금은 250명이 채 안돼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무용인구가 줄어서 지금은 한반에 40명이 정원인데 서울, 경기권이 다. 서울도 원래 50명인데 정원을 10명을 줄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도 앞으로 한 5년 안에 30명으로 줄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한 반에. 애들이 없어요. 학령인구 자체가 없어. 30명이면 전공 하나가 없어져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왜냐면 전공 별로 10명씩 뽑을 수도 없고 뽑아봐야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제일 경쟁력이 없는 전공이 설 자리가 없어지겠죠(연구 참여자 인터뷰내용).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학급규모의 축소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이며, 교원 인력 수급이나 교육시설 재배치, 소규모 학교통합으로 인한 학교폐지 등 교육체제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송경원, 2017; 박대권, 2018 재인용).

인터뷰 내용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10여 년간 한국무용 전공생의 감소를 몸소 느끼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국, 영, 수 중심의 교육환경이 매우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특수한 분야인 예술교육은 학령인구 감소에서 더욱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 참여자는 학교에서 학령인구감소에 따라 학교에서 학급의 정원을 점차 줄이라고 하는 압박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급 정원 감축은 소규모의 전문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예술 고등학교에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정원을 줄이게 되면 소규모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의 정원감축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무용계의 취업률을 더욱 침체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점차 대중성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무용은 발레와 생활무용에 비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큰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전통성만을 강조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흥미와 동기를 제공하지 못한 채, 한국무용을 배우러 찾아왔던 학생들의 무용교육 의지마저 잃게 만들기도 한다.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지 못하고 지속성이 떨어지는 초등 한국무용 교육의 이러한 현 상황은 전공자들의 감소로 이어지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대학 진학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현재 많은 지방대학의 무용학과는 다른 학과와 통합되었거나 사라지고 있으며, 지방 사설교육 기관의 경우에는 무용전공 강사를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박태연, 2018).

이러한 기초 속에 연구 참여자는 특히 한국무용 전공생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음을 다음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대학교 무용과 중 한국무용이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외국무용교수님들 보다는 조금 연세가 더 있으

실 거고 그분들이 퇴직을 하시면 더 이상 뽑지를 않고 실용무용으로 돌리는.. 학교 입장에서는요 대학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학은 더 이상 아쉬워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들어오지 않아도 대학은 다 굴러가고 실용무용 몇 백 명씩 오는데 굳이 한국무용을 위해 배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연구 참여자 인터뷰내용).

대학 안에서는 예술학과가 산업 수요나 취업률 연계성이 낮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다. 주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지방대 예술학문을 배제하고 지자체의 문화시설 기반 구축과 지원도 미미한 수준이다(뉴스원, 2019.07.31). 실제로 2018년 동아대에 이어 경성대도 대학의 프라임 사업 참여 등의 이유로 무용과의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었다.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결과도 있지만 순수예술의 전공생의 감소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과거 대학교육에서 실행되었던 무용교육은 순수무용 중심의 교육으로 예술성을 추구하는 목적이 더 분명하였고, 실용무용이라는 장르는 대학교육에 유입되지 않는 장르였다. 하지만 현재 대학과정의 무용교육은 변화하고 있고 순수예술의 예술성만을 지향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실용 무용은 이미 대학교육으로의 교육적 가치의 요구를 통해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실용무용을 전공하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로 대학 교육현장에 유입되고 있다(안지형, 김운미, 2018). 미디어를 통한 실용무용의 급격한 저변 확대는 순수예술무용과의 협업 및 융복합을 통한 무용의 대중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에 반해 한국무용 전공생의 감소 현상이 계속 된다면 순수무용은 학교의 압박을 피할 수 없는 현실과 이로 인한 한국무용, 나아가 순수무용의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연구 참여자를 통해 알 수 있다.

순수예술과 실용무용이 같이 가야 한다고 학교재정을 관리하는 분들은 그렇게 보는 거고, 우리 같은 교사 입장은 그 실용무용 애들을 뽑아서 어떻게 같이 관리를 할 거냐 실질적인 문제를 갖고 부딪치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느 순간부터 반대가 힘들겠죠.(연구 참여자 인터뷰내용).

연구 참여자는 순수예술을 위주의 교육을 하는 예술 고등학교의 한국무용 전임교사로서 실용무용 유입에 대한 압박을 느끼며 실제 현장에서 부딪힐 어려움을 우려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시점에서의 합류를 반대하고 있지만 점점 그 반대가 힘들 것으로 예측한다고 하였다.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사회의 변화에 맞춰 춤꾼들은 학교로 몰려가고 있고, 기능적인 춤 실력 이상의 전문화된 지식을 얻기 위해 실용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대학진학이 증가되면서 실용무용의 활성화와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그 이면에는 다양한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다(신채룡, 2015). 그 중 학업중단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실용무용 전공자들이 타 분야의 전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업을 그만두거나 실용무용 외의 분야로 전공을 바꾼다는 것이다(정지원, 2017).

정지원(2017)의 연구처럼 실용무용전공자들은 학업보다도 공연활동 등 외부활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학업 중단이 빈번한데 예술 고등학교의 순수무용전공자들은 입시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학업 중단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차이는 실용무용전공자들과 순수무용전공자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앞으로 학교무용교육에서 실용무용의 합류는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그 추세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전문화된 무용교육 기관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예술 고등학교의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무용 교육의 커리큘럼을 다시 재정비하고 전인적이고 전문화된 예술인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 유아한국무용브랜드의 부재

유아를 대상으로 한 초기 예술 교육은 두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전문예술인으로서의 전부적인 소질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예술적 감성과 심미적 감각을 초기 교육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비예술가로서

일상 생활 및 학습활동에 요구되는 인격형성과 관계형성 및 지적 발달에 매우 효과적이다. 신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표현하는 무용 동작은 음악과 함께 행복한 공간을 향유하며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이우소가 지역, 나아가서 국가 사회에 이바지할 것이다(최윤영, 2010).

유아기의 한국무용교육은 취학 전 유아들에게 장단과 춤을 접하게 하는 중요한 중간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 교유의 전통적인 기본 장단들과 한국무용의 기본 춤 사위연구를 통한 교육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실행은 유아들에게 문화유산으로서 전승되어 온 전통을 지도하고 우리 민족의 정서를 일깨워 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김성나, 2007; 최미희, 2008 재인용).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의 한국무용이 유아교육과 관련 되어서는 서양무용에 비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최미희, 2008).

이러한 홍보의 부재는 한국무용의 인구감소를 불러오고 이것은 한국무용의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는 한국무용전공생의 감소에 있어서 학령인구감소의 요인만큼이나 이러한 발레인구의 급증을 강한 압박으로 느끼고 있었다.

제일 힘든 거는 발레가 인구는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학교 콩쿠르를 하면은 발레와 한국무용이 두 배가 차이나요. 한국무용 100팀이 오면 발레는 두 배가 더 나요. 한 2-300팀..? 그 주된 현상 중에 하나는 유아발레, 그니까 제일 한국무용 인구가 줄어드는 데에는 유아무용이 없는 것이 제일 큰 원인 같아요. 발레는 유아발레부터 시작해서 발레 콩쿠르는 유치부를 만들자나요. 종목은.. 유치부를 유치부문, 유아부문, 어린이부문,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등 유치부문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못하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원인은 발레는 유아발레가 완전히 틀을 잡았고 사교육의 하나이죠. 유아발레는 그냥 사교육의 국어, 영어, 예체능 하면은 그 다음 발레인거죠. 피아노보다 발레를 더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요? 음악 하는 것 보다는.

그런데 한국무용은 없어요. 상대적으로 없다 보니까 전공생만 하게 되는 거죠. 제일 큰 이유는 아마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러면 유아발레는 하다가 예쁘게 잘 자

라고 체격조건이 좋으면 전공 반으로 가고 아니면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던 발레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발레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느 누구나 쉽게. 그런데 한국무용은 그럴 기회가 없다는 거죠. 점점 (연구 참여자 인터뷰내용).

연구 참여자는 발레가 사교육의 하나로서 유아발레가 완전히 틀을 잡았고 이것은 누구나 쉽게 유아기에 발레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고 했다. 그로 인해 발레의 저변 확대가 쉽게 이루어지고 그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콩쿠르에서 매년 그 참가인원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고도 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초등 무용교육기관은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고 대부분 발레에 중점을 둔 무용교육 기관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통무용을 기반으로 한 무용교육은 지극히 소수이다. 대표적 무용교육기관의 수업은 학교의 정규 수업 과정 이후의 수업으로 사설학원처럼 운영되는 실태이고,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서의 무용 전문인 양성이 어려운 현실이다(박태연, 2018).

한국무용 전공자는 한국 춤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전통 국악의 리듬과 장단을 직접적으로 들으며 학습을 통하여 고유의 한국 춤을 습득하고 익혀왔다. 즉, 한국 춤의 직접 체험은 한국 춤 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데 있어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유지영(2006)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무용 경험이 무용에 대한 관심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보았다(권세시, 2014).

이처럼 유아기의 한국무용 경험은 한국무용의 저변확대와 나아가 한국무용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유아한국무용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단단한 기반의 구축이야말로 학령인구감소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한국무용교육을 다시 재정비 하는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한다.

외국 사례와 비교해보면 국내 대표적 무용교육기관의 문제점은 아동기에서부터 전문 무용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조기교육을 통하여 전통무용을 경험하고 정체성을 찾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초등교육과 중·고등교육으로 연결되어 유아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전문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박태연, 2018).

제일 큰 이유는 그런 전공을 접근할 수 없다는 것, 그런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것, 그리고 또 발레는 예를 들면 ‘유니버설’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또 하나 ‘문훈숙 줄리아 발레 스쿨’의 또 어떤 영재교육 시스템이 사교육에 다 되어있어요. 예를 들면 구몬 수학, 웅진 싱크빅 처럼 발레는 그렇게 딱 브랜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딱 센터가. 그런데 한국무용은 단 하나도 없죠. 없으니까 이제 어머니들끼리도 한국무용을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돼? 그런 유명한 어디 센터가 없는 거죠. ‘유니버설 아카데미’도 없지, ‘줄리아 발레 스쿨’도 없지, ‘바가노바 스쿨’도 없지, 예 그니까 그런 브랜드 인지도가 우리도 굉장히 크잖아요. 무언가를 선택 할 때. 그런데 한국무용은 그런 게 없죠(연구 참여자 인터뷰내용).

일반적으로 브랜드 구축은 조직에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기업의 강력한 브랜드구축은 상품 관리 및 브랜드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목표가 된다(Esch et al, 2006; 최철재, 2017 재인용). 연구 참여자는 발레의 경우 대표적인 발레교육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 접근이 용이하여 누구나 쉽게 발레를 배울 수 있다고 했다. 발레교육의 브랜드화는 유아발레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은 곧 발레전공자의 확대를 불러올 것으로 사료된다. 꼭 전공자로 전환하지 않아도 어렸을 적 발레를 접해본 아이가 성장해서도 발레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향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무용의 경우 유아한국무용을 배우려고 할 때 발레와 다르게 대표적인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의 부족을 연구 참여자는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유아 한국무용교육의 브랜드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 내용은 다음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무용 그게 한국무용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걸 살려야 하는데 이미 한국무용전문학원은 없으니까 발레학원 안에서 한국무용을 배우니까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고요....한국무용 전공인구가 취미인구에서 전공인구로 가야 되는데 취미

인구가 안되니까 전공하려는 애들이 적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무용 하는 아이들은 늦게 시작하고 발레는 일찍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고 ...거기서 질적으로 실력의 차이도 나타나죠(연구 참여자 인터뷰내용).

위의 인터뷰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 참여자는 유아한국무용의 약한 기반을 우려하면서도 한국무용교육 확대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한국무용 교육전문브랜드 구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브랜드구축을 통해 한국무용을 전공으로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혹은 한국무용을 자녀에게 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이 좀 더 한국무용을 쉽게 접하고 일찍 시작하여 질적인 성장도 가능함을 예측할 수 있다. 40세 미만 경제학자에게 주는 예비 노벨상인 '존 베이즈 클라크 메달' 수상자인 스탠포드 라즈 체티(Raj Chetty) 교수의 하버드 시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아기에 받은 교육 수준이 성인이 된 후의 소득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인지능력과 비인지능력의 토대가 마련되는 유아기의 교육 과정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최근 세계적인 석학들의 연구결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뉴스메이커, 2018.09.07).

박혜훈, 조형숙(2015)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개인적 경험, 환경에 따라 작품을 바라보는 미적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 Parsons의 견해(박취락, 2013, 재인용)에 비추어 볼 때, 유아들은 동시대 미술 감상을 통해 미술과 관련된 교육적 경험을 함으로써 다양한 미적 대상을 접하고 미술의 표현 유형, 감상 형식, 미술작가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이지연, 강주희, 2012)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대표적인 유아한국무용 브랜드가 구축이 되어 쉽게 접해보고 경험할 수 있다면 유아기의 한국무용을 통해 예술적 성향이 한국무용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한국무용 교육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통합예술교육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현재의 교육과정과 시간 등 전반적인 교육형태가 미래사회도 적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한국교육신문, 2017; 김은비 외, 2019 재인용). 한국무용의 교육 역시 외 부적인 요인이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글로벌한 무용예술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새로운 방향성과 목표를 고민하고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요즘 학부모들은 이제 무조건 다 유학을 보내는 것이 답이 아니고 정말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시켜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변화라고 친다면 우리도 진정 원하는 아이들, 진짜로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 길을 걷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비록 양은 축소됐지만 질적으로는 우수한 아이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아이들이 이 길을 가는 게 아닐까 그런 긍정적인 변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끝까지 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한다면 또 무용계가 앞으로 더 발전을 하겠죠(연구 참여자 인터뷰내용).

최근 교육의 흐름은 구성주의적 관점의 교육방식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김지영, 윤정옥, 2019). 연구 참여자는 교육의 세태변화에 따라 무용교육 또한 변화함을 인지하면서 그 규모는 작아졌지만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하여 그 전보다 더욱 질적으로 우수한 예술인재를 배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학습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에 대하여 진단, 계획, 실행 및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자기주도성과 자기주도학습은 교육에 있어서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인간 양성'이 학교교육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기도 했고, 최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미래 사회가 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6가지 핵심역량 중 하나로 '자기관리 역량'을 포함하고 있다(이진영, 정제영, 2019).

학령인구의 감소는 규모의 축소를 가져왔지만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한국무용의 키워드 중 하나는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인재양성임을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한편,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에서 장기간 걸쳐 형성된 한국 특유의 전통문화는 그 자체만으로

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유의 자산이며,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의 한류 대중문화에서도 한국 전통 고유의 특성을 발굴하여 새로운 콘텐츠로서 창출해야한다(서민수 외, 2013; 조영인, 2019 재인용).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한국 전통예술은 한국무용에서는 무형문화재 중심의 전통무용에 국한하고 무용의 독자적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어 통합적 발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래의 인터뷰는 연구자의 이러한 의견을 지지해준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니까 한국무용은 발레현대와 같이 겨룰 무용의 장르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 안에서 우리나라 그 정서가 같이 접목을 해서 이 무용을 발전 시켰어야 되는데 너무 발레와 무용 쪽으로만 가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무형 문화재 종목별로 전파가 되다 보니까(연구 참여자 인터뷰내용).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은 한국무용을 무용이라는 장르에 한정지어 발전시키기 보다는 한국의 전통종합예술의 한 장르로서 통합적으로 발전을 도모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문화의 다양성은 곧 가치의 다양성이며, 존재의 다양성이다(김근형, 2016). 한국무용도 마찬가지로 움직임과 춤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이며, 한국무용 안에서도 다양한 범주아래 한국무용 교육이 포함 되어있다. 그 안에서도 다름의 가치와 존재의 인지를 통한 다양성이 있으며 각각의 다양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확립되어야 견고한 뿌리를 통해 한국무용이라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하나의 문화 한국문화의 정체성 안에서 무용교육을 잡아가야 할 거 같아요. 저는 하나의 문화 안에서 우리나라 그 정서가 같이 접목을 해서 이 무용을 발전 시켰어야 되는데 너무 발레와 무용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종합예술 쪽으로도 되고 국악과 한국음악과 같이 발전을 했다면 오히려 더 정부적인 지원도 늘어날 수 있었고 한데, 가장 이상적인 곳은 국악고등학교죠. 단순히 무용가, 무용교육자, 전문 무용가가 아니라도 그 이상의 무언가와 다른 분야의 무언가와 융.복합을 해서 그 이상의 직업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변

화는 기대하고 있어요(연구 참여자 인터뷰내용).

연구 참여자는 앞으로의 한국무용교육은 접목과 융합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함을 시사했다. 한국의 고유 문화 안에서 다른 장르와 함께 같이 발전한다면 국가적인 지원도 현재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무용의 현 교육과 더 나아가 취업과도 연관을 지어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직업군이 탄생할 수 있으며 그것은 나비효과처럼 다른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유빈(2013)은 무용계에서 다양한 무용전문가가 양성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그에 따른 준비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일한 정답을 찾아내는 교육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개별교과가 제시하는 지식만을 학생에게 전달하기보다, 그 지식이 어느 분야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줄 수 있는 융합지식을 학생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또, 무용전공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안무가, 무용수, 무용교육자, 무용평론가, 무용 예술 경영가, 무용행정가, 무용치료사, 무용 분장사, 무용의상디자이너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무용과 다른 학문과의 융합교육과정의 전문화 및 세분화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승희(2015)는 무용교육의 변화 요구에 발맞추어 전통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사회적 요구에 대응, 타 학문과의 연계와 융합 과정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타 학문과 연결된 교과목의 개설을 넓혀 그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창의적 무용탐구의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롭게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 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 설정이 필요하며 창의적인 사고력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은 필연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이영주,2016). 한국무용 인구가 감소하는 이 시점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첫 번째는 한국무용교육의 융복합이다. 한국무용이라는 틀은 정해져 있으나 그 안에서 다양한 융합과 접목을 통해서 한국무용교육만의 다양성을 확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틀을 정해두지

않고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꾸준히 이어 나간다면, 하나의 전공에서 얻을 수 없던 확장된 의미와 교육의 다양성과 중요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장기화된다면,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직업의 창출 부분에서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한국무용 교육 방향을 탐색하였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A예술 고등학교에서 10년 이상 한국무용 전임교사로 재직 중인 교사1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여 단일 사례로 선정하고 심층적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하여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속되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학령인구의 감소현상은 무용교육에도 악영향을 끼치며 특히 연구 참여자는 한국무용의 인구 감소를 실감하고 있었다. 실용무용의 상승세 또한 한국무용의 입지를 약하게 하고 학교에서의 압박을 받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현상에도 불구하고 유아발레와 발레 교육전문브랜드의 활약으로 사교육의 하나로 자리 잡은 발레는 그 인구가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유아한국무용의 기반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는 유아한국무용 브랜드 구축을 제시하였는데 유아기의 한국무용을 통해 쉽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다면 한국무용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한국무용 교육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연구 참여자는 앞으로의 한국무용교육이 무용의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문화와의 다양한 접목과 융합을 통해 발전시켜야 함을 시사했다.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꾸준히 이어 나간다면, 하나의 전공에서 얻을 수 없던 확장된 의미와 교육의 다양성과 중요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장기화된다면,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직업의 창출 부분에서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학령인구감소현상을 대비하여 한국무용교육에도 변화와 혁신을 바

탕으로 다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을 적용하는 연구도 진행되어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세시(2014). **유아의 한국춤 교육에 대한 무용전공자의 인식조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서울.
- 김근형(2016). **청소년의 문화다양성교육을 위한 통합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서울.
- 김병만(2018). AHP 기법을 활용한 학부모용 유아교육 정책 평가척도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한국생태 유아교육학회**, 18(1), 253-272.
- 김선녀(2019). 저출산 문제의 담론적 비판과 인식전환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 **사회복지법제학회**, 10(2), 95-115.
- 김성나(2007). **유아한국무용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현황과 실태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김은비, 류성장, 박기범, 백영선, 박선민, 조대연(2019). 학령인구 감소에 따르는 초등 미래교육을 위한 과제, **역량기반학습연구**, 제14권 제3호, 193-221.
- 김지영, 윤정옥(2019). 무형문화재 전통무용 교육을 위한 인지적도제 기반의 보편적 학습설계 (UDL), **한국무용학회지**, 제19권 제 2호, 61-73.
- 박대권(2018). 정권교체와 학교교육 정책변동 외교정책과 자유학기제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44, 165-186.
- 박성희(2018). **직업무용수의 출산경향이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사례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박지은, 김승일(2019). 교육기관에 따른 부모의 무용 관여도와 만족도가 유아의 무용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학회지**, 제19권 제1호, 83-95.
- 박태연(2018). **초등 한국무용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박현정, 김지영(2012). 학교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 활동에 따른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변화, **한국무용학회지**, 제12권 제 1호, 63-73.

- 박혜훈, 조형숙(2015). 동시대 미술 감상활동에서 나타난 유아 경험의 교육적 의미, **한국영유아교육학회지**, 19(4), 135-171.
- 박휘락(2013). **미술감상과 미술비평의 교육**, 서울 : 시공사.
- 서민수, 정태수, 주영민, 이해옥(2013). **新한류 지속발전을 위한 6대 전략**, **삼성경제연구**, 899, 8.
- 송경원(2017). 인구절벽과 학교, **우리교육**, 267, 44-51.
- 신채룡(2015). **실용무용전공 대학생의 진학요인과 적응과정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서울.
- 안지형, 김운미(2018). 실용무용계열 학생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대한무용학회지**, 76(6), 137-163.
- 유지영(2006). **체육교사의 무용교육 교수활동 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 : 서울지역 중등학교 '무용전공 전공한 체육교사' 대상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윤지현(2017).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 양상과 의미에 대한 사례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충청남도.
- 이성희(2013). **한국무용공연활동이 여성노인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이영주(2016). **자유학기제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한 예술중심 융합교육의 분석 및 제언**,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용인.
- 이은형(2018). **초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 무용의 역할과 필요성**,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이지연, 강주희(2012). 동시대 현대미술의 의미 있는 수용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미술교육학회지**, 23(3), 151-174.
- 이진영, 정제영(2019).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경기교육중단 5차년도 결과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제 37권 2호, 197-221.
- 장유빈(2013). **대학무용교육에서 융합교육의 필요성**,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정성호(2018).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공공사회학회**, 36-64.
- 정시현(2012). **한국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실용무용 관련 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서울.
- 정옥희(2018). 기술자본 담론과 고등무용교육의 미래, **한국무용예술학회지**, 69, 1-28.
- 정지원(2017). **실용무용 전공자들의 학업적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서울.
- 조영인(2019). K-POP과 전통예술의 융합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전통예술의 대중화 방안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3(2), 27-36.
- 최미희(2008). **유아 한국무용교육의 학부모 인식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최운선(2018). 교육과정 분석을 기반으로 한 대학융복합 무용교육 방안, **한국무용학회지**, 제18권 제3호, 61-73.
- 최윤영(2010). 초기 예술 교육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한 고찰, **한국무용학회지**, 10(1), 65-76.
- 최철재(2017). 의류점의 브랜드인지와 브랜드친숙성이 점포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브랜드이미지, 점포이미지 및 점포신뢰의 인과적 역할, **유통경영학회지**, 20(4), 69-79.
- 하승희(2015). **소셜미디어 접근성과 무용교육적 속성, 교수행동, 소셜미디어 태도와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서울.
- 홍애령(2018). 중등학교 학교무용교육연구의 논제 유형 고찰,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5(3), 109-127.
- Esch et al(2006). *Asset and risk management : risk oriented finance*, Hoboken, NJ, 383-388.
- Micheal Clayton, Mark Franko, Nadine George-Graves, André Lepecki, Susan Manning, Janice Ross, Rebecca Schneider, Noémi Solomon, Stefani Miller (2013). Dialogue: Inside/Beside Dance Studies: A Conversation. Mellon Dance Studies in/and the Humanities, *Dance Research Journal*, 45(3), 3-28.
- Spradley, J. P(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Y : Reinhart & Winstons. 이희봉역(2003).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 관찰 방법**,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뉴스메이커 (2018. 09.07)
- 뉴스원 (2019. 07.31)
- 이코노미 (2019. 12. 18)
- 한국일보 (2019. 02.28)
- 한국교육신문 (2017. 02.10)
- 논문투고일: 2019. 11. 30
심사완료일: 2019. 12. 23
수정완료일: 2020. 01. 17
게재확정일: 2020. 01. 29